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한농연중앙연합회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전문적 지식 아우르는 대선공약 개발에 박차!!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7월 1일 한농연 회관 강당에서 충북대학교 성진근 교수와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를 초청하여 대선공약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농연은 올해 초 2002년 주요핵심 사업으로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대응 활동을 선정하고, 「대선공약 개발기획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농연이 요구할 대선공약 개발에 힘써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에서 한농연이 제시할 농정공약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와 조언을 듣고 보완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저녁 8시까지 이어졌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식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농특위 참여 유보 7월말 「쌀산업 소득보전 직불제」 발표 후 탈퇴 여부 결정 !!

지난 6월 17일 농특위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 금년산 쌀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공공비축제의 금년 내 법제화 ▶ 내년 중 양곡거래소의 개설 등을 골자로한 “쌀산업종합대책”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 “쌀산업종합대책”이 내용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조차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농민단체는 농특위 분과회의, 상임위, 본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농민들의 요구 사항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특위는 참가 위원간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 등으로 인하여 농민단체의 참가가 무색 할 정도로 농민단체의 의견은 묵살되어 왔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 6월 20일 농특위와 농림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쌀산업종합대책”의 전면 백지화, “농특위 운영과 관련 농정현안에 대한 추가 재원확보와 부처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특위는 지난 6월 26일 다음과 같이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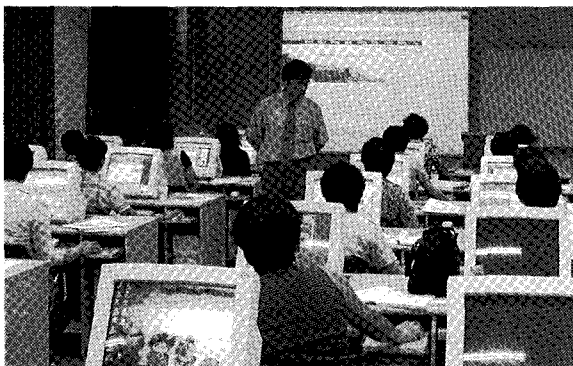
1. 기 발표된 “쌀산업 종합대책”의 경우 전면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을 보완하겠음.
2. 농특위의 운영과 관련한 한농연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특위도 인정하지만, 참가하고 있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도 존중해야 함

이에 한농연은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의 근간이 되는 소득보전직불제가 7월말에 제출될 예정임에 따라 그 발표 내용을 지켜본후 농특위의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

한농연 경기도연합회 정보화 교육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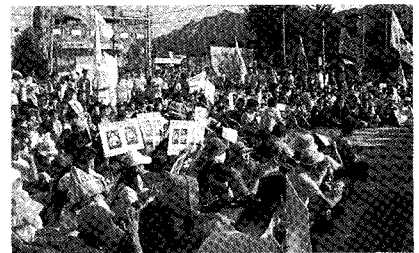
▲ 경기도연합회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농연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 까지 한경대학교 종합 강의실에서 2차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정보화 교육은 회원 140여명이 참가하여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과 PC 이용의 기초,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활용 등 폭넓은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강의는 학습 정도에 따라 A, B, C반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을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경기도연합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1차 정보화 교육을 진행 한 바 있다.

미군 장갑차 사건 희생자 심미선양 부친 한농연 양주군연합회 심수보 회원으로 밝혀져

한농연 양주군연합회는 지난 7월 4일 의정부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살인만행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범국민대회에 양주군연합회 임원 및 읍·면 임원과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군 만행을 규탄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수보 회원은 1992년에 후계자로 선정되었으며, 쌀 농사를 지으며, 새마을지도자 회장 및 영농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 심회원은 광적농협 이사와 한농연 양주군연합회 광적면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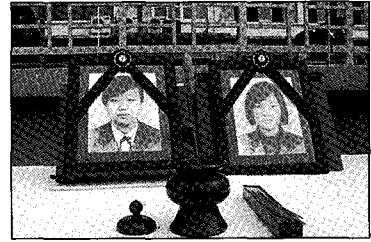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 사건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7월 4일 미2사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사건 개요 >

- **사건발생일시** :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
- **가해자** : 워커마크 병장 (미2사단 44공병대 캠프 하우스 소속,36)
- **피해자** : 심미선, 신호순 (14, 조양중학교 2학년)
- **사건 개요**



▲ 조양중학교에서 거행된 고 심미선, 신호순양의 영정사진.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파주 방향으로 양주군 덕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미2사단 44공병대 캠프 하우스 소속 장갑차(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 36)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심미선양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故 심미선양은 한농연 양주군연합회 심수보 회원의 1남 2녀 중 막내딸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잣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 위아래를 길게 일직선으로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시신의 형체도 남지 않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장갑차가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교차하기 위해 도로 옆 잣길쪽으로 붙여 진행하다 조수석에서 뒤늦게 심양 등을 발견하고 멈추라고 했으나 장갑차 안이 너무 시끄러워 이를 듣지 못한 운전자가 그대로 진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범국민대회”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 대학생 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농연 진주시연합회 자문 변호사와 지정 의료기관 선정

한농연 진주시연합회는 농민의 인권보호와 법률상담을 위한 자문 변호사 역할을 위하여 강처목 법률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한농연을 비롯한 지역 내 농민들의 각종 법률문제가 발생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농연 진주시연합회는, 지정의료기관으로 진주 한일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한농연 회원들에게 ▶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비 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20% 감면 ▶ 일반수가 적용대상자는 진료비의 20% 감면 ▶ 종합검진 10인 이상 단체 검진시 20% 감면 ▶ 구급차 후송시 후송비 감면 ▶ 비회원에 대하여 회장, 대표이사 추천으로 10%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밖의 농업계 소식

WTO 국민연대 농특세 후속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WTO 국민연대는 농특세가 2004년 6월 끝나게 됨에 따라, 7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농특세 후속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WTO 국민연대는 성명서에서 “WTO농업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그동안 농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졌던 농특세마저 2004년 6월 종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WTO 국민연대는 “우리농업의 생산기반 재원인 농특세마저 끝이 난다면 농업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WTO 국민연대는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박사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농특세는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산업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농특세 후속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해양수산위 박용호, 장정언, 정인봉의원 의원직 상실, 강현욱의원 의원직 사퇴에 따라 8.8 보궐선거 실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용호의원(민주당·인천 강화), 정인봉의원(한나라·서울 종로), 장정언의원(민주당·북제주군)이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강현욱의원(민주당·전북 군산)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오는 8월 8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8.8 보궐선거는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과 의원직 사퇴로 인하여 서울 종로, 금천, 영등포, 부산 해운대 기장(갑),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북구(갑), 광명시, 안성시, 하남시, 마산 합포, 전북 군산, 제주 북제주 총 13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농연**